

백남준, 강이연, 구기정, 권혜원, 염인화
NAM JUNE PAIK, YIYUN KANG, GIJEONG GOO, HYEWON KWON, INHWA YEOM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The
City
of

Nam June Paik

The Sea Fused
with The Sun

백남준아트센터
NAM JUNE PAIK ART CENTER

2025. 8. 7.

2025. 10. 19.

현대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크린에서 쏟아지는 빛으로 뒤덮이며, 이미지와 소리의 정보가 끊임없이 흐르는 거대한 인터페이스처럼 존재한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빛은 단순한 신체 감각의 자극을 넘어, 비디오 이미지와 소리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전자 신호의 변환된 형태이기도 하다. 빛이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전달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수백만 개의 비디오는 빛과 함께 재생되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이는 인간의 인지 가능한 범위를 넘어 전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계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도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인류의 사건을 더 이상 말이나 글이 아닌 비디오로 기록하게 될 것을 예견한, 백남준의 ‘비디오리(videory)’¹를 떠올리게 한다. 백남준의 말처럼 오늘날 역사는 이미지나 비디오로 기록된다. 인류의 정보, 사건, 이야기를 담은 수백만 개의 비디오가 중첩하는 시공간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비디오를 단순히 감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디오가 기록하고 생성한 인류의 역사가 축적된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 전시는 비디오가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본질을 탐구했던 백남준의 사유를 출발점으로 삼아, 동시대 최첨단 기술이 만들어내는 비디오의 다층적 시공간을 살아가며 이를 예술로 구현하는 동시대 작가들을 조명한다. 이들은 각자의 작업을 통해 지구 멸종과 소멸의 역사를 되짚어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질문을 던지고, 기후 위기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타자의 존재를 새롭게 상상하며, 몰입적 기술의 기원을 통해 인간 인식 방식의 변화를 탐구하고, 자연과 기계가 뒤섞인 풍경을 통해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실험한다. 이들의 작품은 비디오가 재구성한 세계 안에서 비인과적으로 연결되고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 지금의 순간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서로 더욱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운다.



1 “‘역사(history)’라는 단어는 인간의 사건들이 구술되고 문자로 기록되면서 비로소 성립된 개념이다. 오늘날 역사는 이미지나 비디오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역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이미지리(imagery)’ 혹은 ‘비디오리(videory)’만 존재한다.” 백남준, 「빙햄튼에서의 편지」(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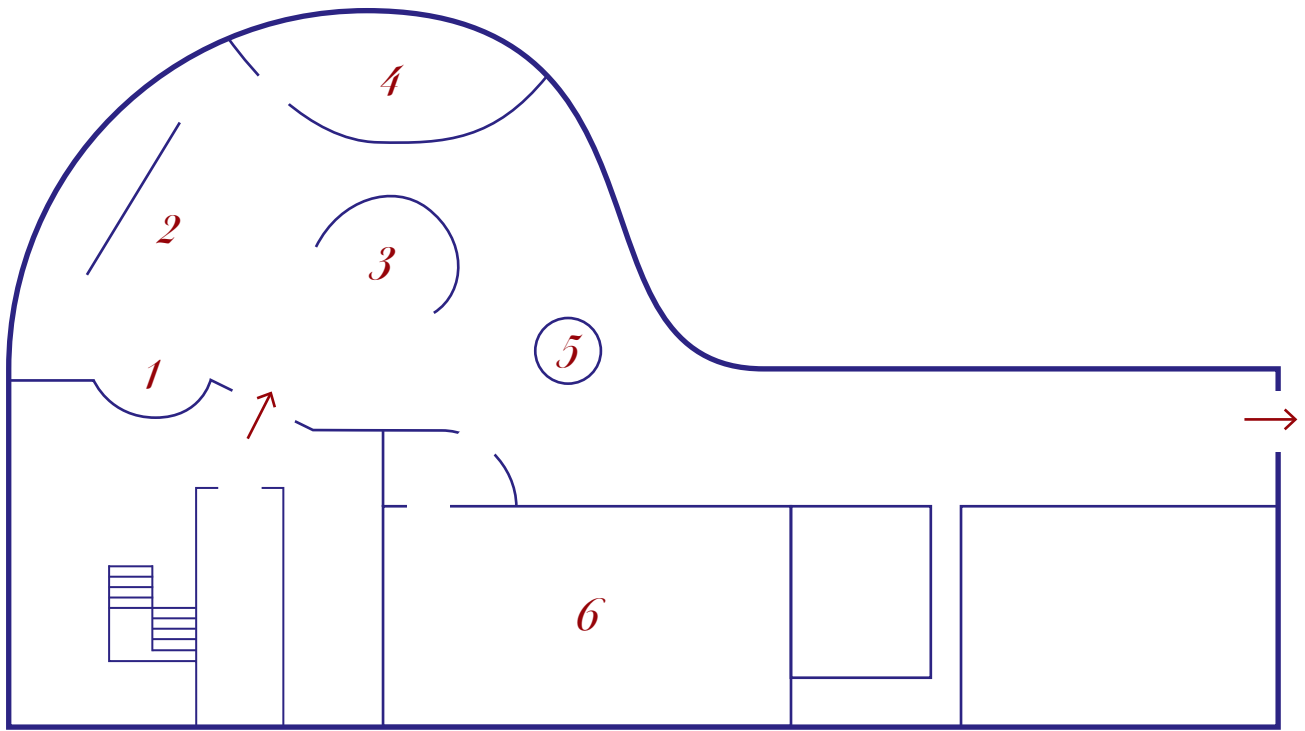
The modern city is suffused with light that emanates from screens day and night. It exists as something like a vast interface with unending flows of image and sound information. The light we encounter every day does not simply stimulate our physical senses—it also exists as a converted form of electric signals that transmit and process video images and sounds. The volumes of information that light can contain have increased enormously, along with the speed of their transmission. Millions of video images stream across the city and appear before us, replayed with light. This is more than just a new kind of experience—transcending the bounds of human cognition, it is a phenomenon that alters the way we remember and perceive the world. Such transformations in the urban media environment conjure associations with Nam June Paik’s “videory”¹: his prediction that human events would one day be recorded in video rather than told or written language. As Paik foresaw, history today is documented in image and video form. This shows that in a spatial and temporal setting where millions of video images

overlap—containing the information, events, and stories of humankind—we are no longer beings who simply “perceive” video. We live in a time and place of layers of human history recorded and formed by video.

Taking as its starting point Nam June Paik’s essential explorations of the time and space that video creates, this exhibition spotlights contemporary artists who are living in the multilayered video environments that today’s cutting-edge technology creates and transforming this experience into art. In their work, they review a history of extinction and annihilation on Earth to pose questions about human sustainability; they envision the existence of others in new ways through imaginary climate crisis scenarios; they explore changes in human cognition through the origins of immersive technology; and they experiment with the boundaries of the real and virtual through landscapes blending nature with machinery. Based on events that are simultaneous and non-causally connected in a world redefined by video, the artists encourage us to reflect on our current moment through new eyes and realize how deeply interconnected we are.



1 The word “history” came into being, because our events were told and written down thereafter. Now history is being recorded in image or video. Therefore from now on there is no more “History”, but only “Imagery” or “Videory”. Nam June Paik, “Binghamton Letter” (1972)



- 1 백남준, 촛불 *TV* Nam June Paik, *Candle TV*
- 2 백남준, *M200* Nam June Paik, *M200*
- 3 염인화, 솔라소닉 밴드 Inhwa Yeom, *Solarsonic Band*
- 4 권혜원, 더블 비전 Hyewon Kwon, *Double Vision*
- 5 구기정, 투명성 렌더링 장치 Gijeong Goo, *The Transparent Rendering Apparatus*
- 6 백남준, 호랑이는 살아있다 Nam June Paik, *Tiger Lives*
 강이연, 배니싱 Yiyun Kang, *Vanishing*
 구기정, 투명성 시각 풍경 Gijeong Goo, *The Transparent Visual Scenes*
 권혜원, 우로보로스 엔진 Hyewon Kwon, *Ouroboros Engine*
 염인화, 솔라소닉 밴드 (Inst.) Inhwa Yeom, *Solarsonic Band (Inst.)*

백남준 촛불 TV

1975(1999)

34 × 36 × 41 cm, 조 1개, 철제 TV 케이스 1대

〈촛불 TV〉는 오래된 텔레비전의 내부를 비워버린 철제 케이스 안에 촛불 하나를 켜 놓은 작품이다. 백남준이 1963년 첫 번째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실험 텔레비전들이 내부 회로를 변형시켜 왜곡된 이미지들을 모니터에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촛불 TV〉는 내부를 완전히 비워냄으로써 극단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갖는다. 텔레비전이 만들어내는 전기적 빛을 타오르는 촛불로 대체한 이 작품은, 촛불이 물질을 태워 빛을 만들어 내고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 텔레비전의 전자적이고 비물질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텔레비전이 주사선을 통해 빛으로 이미지와 소리의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광원이라면, 촛불 또한 빛의 상징이자 감각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이자, 시간과 인식의 구조를 암시하는 상징적 장치로 읽을 수 있다.



Nam June Paik Candle TV

1975 (1999)

34 × 36 × 41 cm, 1 candle, 1 steel TV case

Candle TV is a single candle lit in an empty steel casing of an old television. Compared to experimental televisions whose internal circuits were modified to distort images on the screen in Nam June Paik's first solo exhibition in 1963, *Candle TV* has rather a simple structure by emptying a television set out. In this work, the television's electronic glow is replaced with a burning candle. The process of the candle disappearing as it creates light through combustion illustrates the electronic and nonmaterial nature of television. If the television represents a light source that conveys image and sound information through its scanning

lines, the candle may be read as a symbol of light, a medium that conveys perceptions and information, and a symbolic device alluding to the structures of time and cog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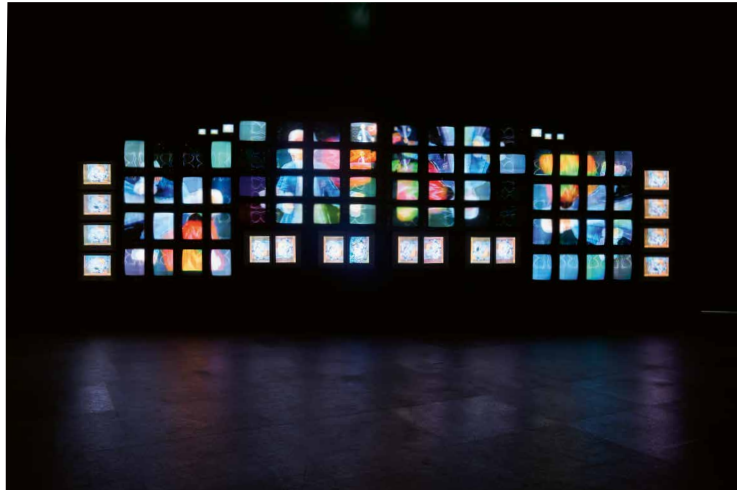
백남준 *M200*

1991

300 × 960 × 50 cm, CRT TV 모니터 86대,
2-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M200*》은 86대의 CRT 텔레비전을 수직과 수평으로 배열한 매트릭스 형태의 작품으로, 1991년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연주 이미지와 그의 음악을 비롯하여 피아노, 메트로놈, 악보 등의 이미지를 컴퓨터 그래픽 효과로 시각화하고, 〈굿모닝 미스터 오웰〉, 〈세계와 손잡고〉, 〈머스 바이 머스 바이 백〉의 주요 푸티지를 포함한 두 채널의 비디오를 보여준다.

백남준은 196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식의 대형 멀티 텔레비전 설치를 통해 비디오가 만들어 내는 시공간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처럼 공간의 배경을 이루는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이미지로 가득한 비디오월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무드아트(mood art)’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단순한 시각 장식으로 기능하거나, 나무와 물고기 같은 자연 요소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Nam June Paik *M200*

1991

300 × 960 × 50 cm, 86 CRT TV sets,
2-channel video, color, sound

Presented in a matrix format with 86 cathode-ray televisions arrang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M200* was created to commemorate the 200th anniversary of Mozart's death in 1991. Its video component combine images of Mozart's performance and music—along with imagery of a piano, metronome, and musical scores—through computer-generated graphic effects, and presents a two-channel video incorporating key footage from *Good Morning Mr. Orwell*, *Wrap Around the World*, and *Merce by Merce* by Paik.

From the mid-1960s, Nam June Paik explored the temporal and spatial possibilities of video through different forms

of large multi-television installations. The video wheel is filled with images in different shapes and colors that form a spatial background much like the background music playing on a radio. In Paik's works, this is “mood art” that naturally percolates into everyday life, functioning as a simple visual decoration or forming organic harmonies with natural elements such as trees and fish.

염인화 솔라소닉 밴드

2024(2025)

가변 크기, 3D 퍼포머티브 장치-환경(PC기반 가상현실, 모바일 증강현실, 제작 악기), 19분 45초, 스테레오 사운드

〈솔라소닉 밴드〉는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한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이다. 이 밴드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도 ‘태양’이 떠 있는 한 야외 공연을 계속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 밴드의 무대는 암석권, 생물권, 수권, 빙하권, 대기권 등 기후계를 순회하는 가상현실(VR) 환경으로 구현되며,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밴드 멤버들은 이 공간에서 공연 리허설을 펼친다.

관객은 증강현실(AR) 기반의 밴드 스탠드를 통해 ‘밴드 리드’ 역할을 맡아 리허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밴드 스탠드는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3D 인터랙티브 그래픽 악보와 악기, 공연 스태프 간의 원격 통신 등을 통합해 시청각적 환경을 구성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퍼포먼스’라는 개념이 지닌 다의성과도 연결된다. 즉, 이 밴드는 예술적 ‘공연’이자,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행위’이며, 기술적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하는 리허설이다. 관객은 이 모든 의미들이 교차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하며, 그 복합적인 층위 안에서 함께 예행 연습하게 된다.



Inhwa Yeom Solarsonic Band

2024 (2025)

dimensions variable, 3D Performative Apparatus-Environment (PC-based VR, mobile AR, customized musical instruments), 19min 45sec, stereo sound

Solarsonic Band is a participatory performance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eXtended Reality (XR) technologies. Adapting through a range of technological means, the Band aims to continue their outdoor performance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as long as the “sun” rises. The Band’s stage unfolds as a Virtual Reality (VR) environment that traverses five climate systems—the lithosphere, biosphere, hydrosphere, cryosphere, and atmosphere—where AI-generated band members rehearse their performance.

Audiences partake in the rehearsal as a “band lead” by using Augmented Reality (AR)-based Band Stand. This Stand audio-visualizes various elements of the performance—such as 3D interactive graphic scores, instruments, and remote communication with backstage staff. These diverse elements highlight the polysemy of the term “performance” as artistic execution, collective

climate action, and technological system capability. The Band invites audiences to rehearse these multiple significations together.

제작 협력

사운드아트 제작: 서승주
XR 시스템 개발: 장석성
장치 제작: 그린레벨(최민석)
기후 데이터 연구: 남궁민상
담론 연구 및 관리: 허대찬

In collaboration with

Sound Art Production: Seungju Seo
XR Development: Seongsung Jang
Apparatus Production: Green Level (Minseok Choi)
Climate Data Research: Namgoong Minsang
Climate Research & Management: Daechan Heo

권혜원 더블 비전

2025

가변 크기, 입체시 3D 단채널 비디오,
9분 54초, 컬러, 다채널 오디오 사운드

권혜원은 <더블 비전>에서 몰입적 기술의 기원 중 하나인 입체시 3D 기법을 통해 인간의 시지각 원리와 이를 구현해 온 기술의 관계를 탐구한다. 작품의 제목인 '더블 비전(Double Vision)'은 입체시 3D(Stereoscopic 3D) 기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두 눈의 상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는 병리학적 시각 증상인 '복시(double vision)'를 함의한다.

권혜원은 현대의 미디어 환경이 개인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자기반영적인 세계로 빠지게 하고, 몰입할수록 오히려 폐쇄된 세계에 갇히게 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작가는 H. P. 러브크래프트와 케네스 J. 스티어링의 SF 소설 『에릭스의 벽』을 떠올리며 이 작품을 제작했다.

소설 속 '에릭스의 벽'은 탈출이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미로'를 의미한다. <더블 비전>에서 백남준아트센터는 가상의 투명한 미로로 설정되고, 퍼포머들은 소설의 주인공과 같이 건물의 안팎을 넘나들며 보이지 않는 경계에 갇히고, 탈주하려는 움직임을 반복한다. 입체시 3D 기술은 시점 자체의 움직임 조작함으로써 실제 공간을 변형시키는 효과를 내고, 촬영된 장면의 거리감과 공간감을 더욱 왜곡하여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벽'을 형성한다. 작가는 <더블 비전>을 통해 현대인에게 과도한 몰입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관점과 인식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감각적 구조로부터 탈주할 가능성을 되찾기를 제안한다.

연출·편집: 권혜원
촬영감독: 박 로드리고 세히
촬영팀: 김창현
3D 입체시 촬영: 김종운, 유원재, 윤민철, 최덕관
그림팀: 조영재, 박현우, 이요한, 박성주
퍼포먼스 연출: 뭉
출연: 곽유하, 손민선, 이조, 조형준
스타일링: 안솔
3D 입체시 자문: 알라릭 하마처
사운드 디자인: 정상인

Hyewon Kwon Double Vision

2025

dimensions variable, stereoscopic 3D single-channel video,
9min 54sec, color, multi-channel audio sound

In her work *Double Vision*, Hyewon Kwon makes use of stereoscopic 3D—one of the origins of immersive technology—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visual principles and the technologies that have embodied them. In addition to describing stereoscopic 3D technology, the title *Double Vision* also refers to a pathological visual phenomenon in which an object appears doubled or the images in each eye do not properly align.

Kwon observes how the contemporary media environment continues reinforcing individuals' interest in ways that draw them into a self-reflective world, which leaves them trapped in insularity the more immersed they are. While

making the work, Kwon recalled the science fiction story *In the Walls of Eryx* by H. P. Lovecraft and Kenneth J. Sterling. In that story, the "walls of Eryx" refer to an invisible labyrinth with no escape. In *Double Vision*, Nam June Paik Art Center is presented as the virtual, transparent labyrinth.

The performers move in

and out of the building, repeating a process of becoming trapped by invisible boundaries and trying to escape, like the protagonists in the story. Stereoscopic 3D technology is used to manipulate the movements of perspective to generate effects that alter the actual space. By further distorting the senses of distance and space in the filmed images, they create another kind of "invisible wall." With *Double Vision*, Kwon urges contemporary individuals to resist sinking into their own perspectives and perceptions in an environment of excessive immersion. Instead, she calls for them to rediscover the ability to escape those perceptual structures.



Director-Editing: Hyewon Kwon
Cinematographer: Pink Shark
First Assistant Photographer: Changhyun Kim
3D Stereoscopic Camera Team: John Kim, Wonjae Yu, Mincheol Yoon, Duckwan Choi
Grip: Youngjae Jo, Hyeonwoo Park, Yohan Lee, Sungjoo Park
Performance Direction: Mu:p
Performer: Youha Kwak, Minsun Son, Ijo, Hyeongjun Cho
Styling: Sol Ahn
3D Stereoscopic Advisor: Alaric Hamacher
Sound Design: Sangin Jung

구기정 투명성 렌더링 장치

2025

200×250×300 cm, 아크릴에 UV 프린트, 모니터, LED,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흙, 살아있는 식물

구기정은 실재하는 자연 풍경을 3D 렌더링 기반의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하고, 이를 영상과 다양한 설치 형태로 구현하는 작업을 통해 인간, 기계, 자연 간의 경계를 실험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탐구한다. 그의 작품 <투명성 렌더링 장치>는 여러 대의 커스텀 모니터가 설치된 대형 스테인리스 구조물로, 내외부가 토양과 살아 있는 식물로 둘러싸여 있다. 작가는 매크로 렌즈로 자연 풍경을 근접 촬영한 뒤, 그 이미지를 질감이 살아 있는 유기적 형태로 디지털 가공해 출력하고, 이를 LED 기판 위에 층층이 병치하여 하나의 입체적인 시각 장면을 구성한다. 이 작품은 내부구조를 외부에 투명하게 드러내어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비롯해, 물리적 장치와 기술적 매커니즘까지 관객에게 직접 보여준다. 작가는 자연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디지털이라는 인공적인 매체로 전환하고, 다시 실제 식물과 토양을 덧붙여 자연과 기술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인)자연의 혼합된 상태를 오가며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관람객은 단순히 매끈하게 정돈된 시각 이미지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드러난 화면을 통해서 복잡한 기술적 구성과 제작 과정을 인식하도록 유도된다.

강한 LED 조명은 편안한 이미지 감상을 방해하면서도, 노출된 기술 구조는 호기심을 자극하며, 우리가 화면을 통해 접하는 수 많은 인공적 이미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되문게 한다. 궁극적으로 작가는 ‘보는 행위’를 넘어, 이미지에 내재된 기술적·물질적 구조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층위와 그 인식 방식을 재고하게 만든다.

Gijeong Goo *The Transparent Rendering Apparatus*

2025

200 × 250 × 300 cm, UV print on acrylic, monitors, LED, stainless
steel frame, soils, living plants

Gijeong Goo recreates actual natural landscapes through three-dimensional rendering-based digital images. Presenting work that realizes these landscapes in videos and various installation forms, he experiments with the boundaries separating human beings, machinery, and nature and explores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m. Goo's work *The Transparent Rendering Apparatus* is a large stainless-steel structure with several custom-built monitors. Its inner and outer portions are surrounded by soil and living plants. After taking photographs of natural landscapes from up close with a macro lens, the artist digitally processes the images into organic forms with vivid textures. He then layers them over an LED substrate to form a three-dimensional visual scene. By transparently revealing the internal structure, the work shows the viewer the process behind the image's formation, along with the physical and technological mechanisms at work. Extracting images of nature and transforming them into artificial digital media, the artist then adds actual plants and soil to create a complex state where nature and technology intersect. In this way, his work is completed through a multi-stage process that alternates within a hybrid state of the digital and (analog) natural.



Rather than simply enjoying the sleekly presented visual images, viewers are encouraged to perceive the complexities of the technological structure and production process through a transparently revealed screen. The powerful LED lighting disrupts the comfort of the image viewing experience, while the exposed technical structure piques curiosity and makes us question how we perceive the many artificial images we encounter through screens. Ultimately, the artist goes beyond the mere act of “seeing” to awaken our perception of the inherent technical and physical structures behind the image, causing us to reconsider the layers of reality that we encounter and the ways in which we perceive them.

백남준 호랑이는 살아있다

1999

단채널 비디오, 45분 27초, 컬러, 유성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11분 56초)

〈호랑이는 살아있다〉는 1999년 한국의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백남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으로 2000년을 하루 앞둔 12월 31일에 임진각에서 상영되었고 한국의 KBS, 미국의 ABC, 영국의 BBC 방송국 등 전 세계 77개국에 생중계되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여전히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이 백남준 특유의 현란하고 빠른 속도로 편집되어 전 세계로 전송되었다. 영상에는 기존에 선보였던 영상 외에 북한에서 제작된 ‘호랑이, 사자의 대결’ 장면과 호랑이 민화가 나온다. 뉴저지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조지 브레히트의

〈모터사이클 선다운〉 이벤트

장면, 래리 밀러의 곡을 연주하는 미국의 소프라노 가수 트레이시 레이폴드에 이어 백남준이 ‘금강에 살으리랏다’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백남준의 〈삼원소〉 앞에 나란히 서서 각자의 곡을 힘껏 연주한다. 한민족을 호랑이로 해석한

백남준은 이데올로기로 인해 고통 받아온 지난 세기를 뒤로 하고 한국인들이 새로운 전장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남준의 예술과 삶을 총망라한 45분 분량의 비디오에서 주요 푸티지를 발췌·편집하여 선보인다.



Nam June Paik *Tiger Lives*

1999

single-channel video, 45min 27sec, color, sound
(single-channel video projected onto a 360-degree screen, 11min 56sec)

Commissioned by the Korea's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New Millennium, *Tiger Lives* produced by Nam June Paik, was presented on December 31, 1999 at Imjingak Pavilion and broadcast live in 77 countries around the globe via broadcasters such as KBS in Korea, ABC in the U.S. and BBC in England. A uniqu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only region to be separated in the world still in a state of truce, aired all over the world, edited by Paik in his own style of rapidly changing imager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video, this work includes scenes of a “fight between

a tiger and a lion” and folk paintings of tigers. The video also features scenes from George Brecht's *Motor Vehicle Sundown* performed by the New Jersey Symphony Orchestra, the American soprano singer Tracey Leipold performing Larry Miller's song, and Paik playing *I'll live in Mt. Geumgang* on the piano. Then Leipold and Paik,

standing side by side, perform their own song in front of the *Three Elements*. *Tiger Lives* represents Paik's wish for Koreans to make a step forward for a new vision after a long time of suffering. For this exhibition, selected footage from a 45-minute video that encapsulates Nam June Paik's art and life will be presented in an edited form.

강이연 배니싱

2022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1분 9초, 컬러, 유성

Yiyun Kang *Vanishing*

2022

single-channel video projected onto a 360-degree screen, 1min
9sec, color, sound

〈배니싱〉은 지구의 대량 멸종 역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을 다룬다. 과거 다섯 번의 대멸종은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처럼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일어났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멸종은 인간 한 종의 활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상은 ‘홀로세 멸종’ 또는 ‘인류세 대멸종’이라고 불린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개입으로 지구 생물 종의 약 75%가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의 명백한 징후로 간주한다. 산업화, 도시화, 자원 채굴,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환경 오염 같은 인간의 활동은 생물종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멸종 속도를 가속화 한다.

그 결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의 급속한 쇠퇴를 외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이들의 소멸은 인간의 자연 착취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배니싱〉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간이 초래한 생명의 상실을 시각적으로 환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화면에 펼쳐지는 장면은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멸종과 소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화석처럼 굳어버린 날개, 그 위를 유영하는 해골 형상은 한때 존재했으나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생명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In a history of mass extinctions on Earth, *Vanishing* focuses on the sixth one, which is underway right now. While the previous five mass extinctions wer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asteroid collisions and volcanic eruptions, the current one is the result of the activities of a single species: humans. Because of this, the phenomenon has been referred to as the “Holocene Extinction” or “Anthropocene Mass Extinction.” Experts warn that around 75% of species on Earth could be threatened with extinction by human interference—a situation they regard as a clear sign of a sixth

mass extinction being at hand. Human activities such as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resource extraction, habitat destruction, climate change, and pollution are hastening extinction as they make the environment less survivable for other species. But while ecosystem diversity is severely threatened, many

people either disregard or fail to perceive the rapid decline of other life forms. Their disappearance is an indicator of human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showing the inconvenient truth that we must all face. Focusing on this theme, *Vanishing* visually invokes the loss of life caused by human activity and raises questions about a sustainable future. The scenes that appear on screen may seem fantastical, but they contain a message of extinction and annihilation. The fossil-like wings and the skeleton drifting overhead are symbolic representations of life forms that existed at one time but have since disappeared or are in the process of disappearing.

구기정 투명성 시각 풍경

2025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6분, 컬러, 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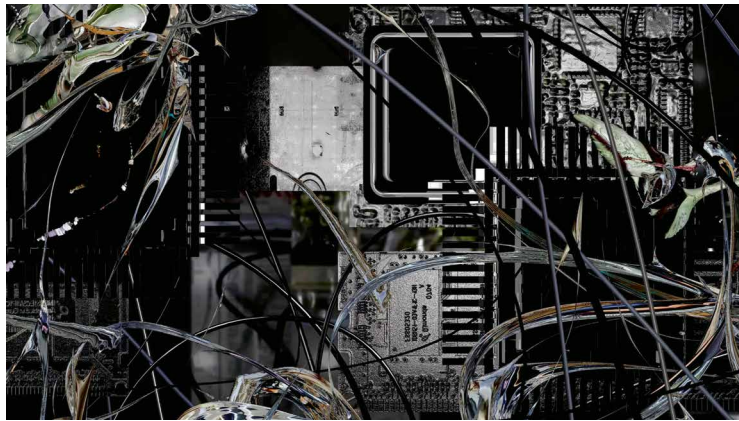
〈투명성 시각 풍경〉은 비디오 설치 작품인 〈투명성 렌더링 장치〉에서 생성된 시각적 결과물을 기반으로 구성된 대형 몰입형 비디오 작품이다. 작가는 ‘투명성’이라는 개념 아래, 디지털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프로젝션의 빛을 생성하는 장치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유기적 형태들을 비디오로 구현한다. 이 비디오는 단순한 이미지 재생을 넘어서, 기계의 물리적 구조를 시각적 층위로 병치시키고, 그로부터 유기적인 생명감을 가진 형상들이 출현하는 과정을 함께 제시한다.

Gijeong Goo *The Transparent Visual Scenes*

2025

single-channel video projected onto a 360-degree screen,
6min, color, sound

The Transparent Visual Scenes is a large-scale immersive video work based on the visual outcomes generated through the video installation work *The Transparent Rendering Apparatus*. Through the concept of “transparency,” Goo attempts to show the process of digital image formation in a sensual way. To this end, he uses a device to create projected light, along with video showing the resulting organic forms. The video goes beyond image reproduction to juxtapose the machine’s physical structure into visual layers, presenting a process where forms with organic vitality emerge as a result.



권혜원 우로보로스 엔진

2025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7분 17초, 컬러, 유성

〈우로보로스 엔진〉은 360도로 천천히 회전하는 파노라마 풍경 속에서,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기보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하는 세계를 만들어낸다. 회전하는 스크린은 때로는 정지 이미지들의 연속으로 이어진 필름 스트립의 형태로, 때로는 빠르게 회전하며 초기 시네마 장치인 조이트로프(zoetrope)처럼 깜박이며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관객은 이 안에서 마치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인 우로보로스처럼, 끝없이 순환하는 고대 시간성을 경험하며, 동시에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를 학습하고 재생산하는 인공지능의 반복적 피드백 루프의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Hyewon Kwon *Ouroboros Engine*

2025

single-channel video projected onto a 360-degree screen, 7min
17sec, color, sound

Ouroboros Engine presents a panoramic landscape that slowly turns 360 degrees, creating a circulating world where time seems to slowly revolve rather than flow in a linear fashion. At times, the revolving screen resembles a filmstrip with a series of connected still images; other times, it turns quickly, resulting in a flickering movement reminiscent of a zoetrope (an early cinematic device). Within this, the viewer experiences an ancient temporality that cycles endlessly like an ouroboros—the symbolic image of a snake eating its own tail—while also experiencing the world of artificial intelligence's repetitive feedback loops, where it learns and reproduces its own generated images.

염인화 솔라소닉 밴드 (Inst.) 2025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8분 15초, 컬러, 유성

〈솔라소닉 밴드 (Inst.)〉는 〈솔라소닉 밴드〉의 연작으로, 기후 위기로 아직 공연되지 않은 악기들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담고 있다. 보컬을 제외한 악기의 소리만을 포함한 연주곡의 형태를 뜻하는 ‘Inst.(instrumental)’는 인간없이 존재하는 악기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영상 속 악기들은 태양열, 번개, 미세먼지 등 비인간적 기후 요소에 반응하며, 인류가 살아가는 기후계를 유영한다. 작품은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공연 이전의 공연으로서 ‘기후 리허설’을 상상하게 한다.

Inhwa Yeom Solarsonic Band (Inst.) 2025

single-channel video projected onto a 360-degree screen, 8min
15sec, color, sound

Part of the *Solarsonic Band* series, *Solarsonic Band (Inst.)* uses the video medium to capture a performance by instruments that have yet to be played due to the climate crisis. The *Inst.* (instrumental) in the title refers to a performance that includes only instrument sounds without vocals—alluding to the possibility of instruments existing without human beings. In the video, the instruments react to non-human climate elements such as solar rays, lightning, and fine particle dust, drifting through the climate systems inhabited by human beings. Through this scenario, the work

encourages us to imagine a “climate rehearsal” as a pre-performance performance.



개막 프로그램

2025. 8. 7. (목)

제2전시실

15:00-16:00

- ▷ 〈연금술적 그대를 연기하라〉
이원석, 동시대 음악가
- ▷ 〈2025. 8. 7.〉
선우손킴, 작곡가

작가 워크숍

2025. 8. 15.-2025. 8. 30.

플렉스룸

- ▷ 구기정의 〈투명성 시각화 워크숍〉
8. 15. (금)-16. (토)
- ▷ 염인화·이원석의 〈AI-어쿠스틱 워크숍〉
8. 23. (토)-24. (일)
- ▷ 권혜원의 〈3D 입체시 워크숍〉
8. 29. (금)-30. (토)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

2025. 9. 13. (토)

야외 뒷동산

17:00

- ▷ 이승규, 미디어 아티스트
- ▷ 키라라, 전자음악가

* 본 행사는 우천시 장소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Opening Programs

Thursday, August 7, 2025

3:00 PM – 4:00 PM

Gallery 2

- ▷ *Acting Alchemical Dear*
Won Suk Lee, Contemporary
Musician
- ▷ 2025. 8. 7.
Sunwoo Shawn Kim, Composer

Artist Workshops

August 15-30, 2025

Fluxroom

- ▷ Gijeong Goo's Visualizing
Transparency Workshop
Aug 15 (Fri) – 16 (Sat)
- ▷ Inhwa Yeom & Won Suk Lee's
AI-Acoustic Workshop
Aug 23 (Sat) – 24 (Sun)
- ▷ Hyewon Kwon's
3D Stereoscopy Workshop
Aug 29 (Fri) – 30 (Sat)

Audiovisual Performance

Saturday, September 13, 2025

5:00 PM

Outdoor Backyard

- ▷ YI SEUNGGYU, Media Artist
- ▷ KIRARA, Electronic Musician

* This event may be rescheduled or relocated in case of rain.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2025. 8. 7. – 2025. 10. 19.

참여작가

백남준, 강이연, 구기정, 권혜원, 염인화

총괄

박남희(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전시기획

조권진

아카이브

이상아

전시보조

문아름

홍보

김지수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히

행정지원

윤동현(기획운영팀장), 김충선,
송유진, 장민정, 한승연, 박민경

공간디자인

마인드디자인, 사일로랩

어서

강현우, 김영민, 신다영, 신종희,
서보민, 송수정, 이은지

번역

콜린 모엣

안내

박승빈, 백지연, 최슬기

사인물

진디자인

시설

곽재근, 박대영, 박종현, 이재룡

운송설치

아트스카이

보안

양동근, 이준호, 유공열, 최동경

사진·영상

최연근

미화

권성희, 권영식, 신순자, 표미정

학예지원

구정화(학예연구팀장), 강연섭,
이혜현, 임채은, 김기찬

유지엄습

서재현

기술

이기준

작품대여

한국렌탈주식회사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 휴관

무료입장

njp.ggcf.kr

031-201-8500

f namjunepaikartcenter

@ njpartcenter

NamJunePaikArtCenter

백남준아트센터

1706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The City of Nam June Paik: The Sea Fused with The Sun

2025. 8. 7. – 2025. 10. 19.

Artists

Nam June Paik, Yiyun Kang, Gijeong Goo, Hyewon Kwon, Inhwa Yeom

Supervised by

Namhee Park (Director, Nam
June Paik Art Center)

Curator

Kwonjin Cho

Public Relations

Jisoo Kim

Assistant

Arreum Moon

Administrative Support

Donghyun Yoon (Chief
Administrator), Choongsun Kim,
Seungyeun Han, Minjeong Jang,
Yujin Song, Minkyung Park

Graphic Design

Studio Hik

Space Design

Mind Design, SILO Lab.

Ushers

Hyunwoo Kang, Youngmin Kim,
Eunji Lee, Bomin Seo,
Sujeong Song, Dayoung Shin,
Jonghee Shin

Translation

Colin Mouat

Signage

Jin Design

Reception

Jiyeon Baek, Seulki Choi,
Seungbin Park

Art Handlers

Artsky

Facilities

Jaegyeun Kwak, Jaeryoung Lee,
Daeyoung Park, Jonghyeon Pak

Photography and Filming

Yeonkeun Choi

Securities

Dongkyung Choi, Junho Lee,
Donggeun Yang, Gongyeol Yoo

Curatorial Support

Jeonghwa Goo (Chief Curator),
Yeonseop Kang, Haehyun Lee,
Chaeun Lim, Kichan Kim

Cleaning

Sunhee Kwon, Youngsig Kwon,
Mijeong Pyo, Soonja Shin

Technician

Kijun Lee

Museum Shop

Jaehyun Seo

Archivist

Sangah Lee

Acknowledgement

Collection of KOREARENTAL
CORPORATION

Opening hours

10 AM – 6 PM

Last admission is one hour before closing

Closed every Mondays, Chuseok

Free admission

Nam June Paik Art Center

10 Paiknamjun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7068 Korea

이 전시는 용인특례시의 2025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 야외 미디어월에서, 이후 용인포은아트홀 야외에서 전시가 계속됩니다.

This exhibition is presented as part of YONGIN SPECIAL CITY 2025 Smart Tourism City Project. It will remain on view from October 20 to December 31 at the outdoor Media Wall of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will continue at the outdoor venue of Yongin Poeun Art Hall.

